

- 일본의 농촌지역 및 농가를 지키기 위한 방안 -

「농가와 마을」의 존속을 위한 「지역영농비전」을 만들어야...

TPP농정으로서 입안된 「사람·농지 플랜」

「사람·농지 플랜」은 정부의 일본의 식과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 행동계획(2011년 10월 25일)을 지역에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 기본방침·행동계획을 시작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식과 농림어업은 소득의 감소, 후계자 부족의 심각화나 고령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산어촌도 활력이 없어지고, 식과 농림어업의 경쟁력과 체질강화는 심각한 과제이다. 동시에 일본의 무역과 투자환경이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면 장래 고용기화가 사라질 염려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식과 농림어업의 재생회의는 『포괄적 경제연대에 관한 기본방침』(2010년 11월 9일)과 같이 높은 수준의 경제연대 추진과 일본의 식량자급율의 향상과 국내농업·농촌의 진흥을 양립시켜 지속가능하고 힘이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정력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여기에서 확인해 두고 싶은 한 가지는 포괄적 경제연대에 관한 기본방침이 정부·재계·언론이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신성장전략」 즉 강한 경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농지플랜」은 TPP나 소비증세, 원전재가동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강한경제를 갈망하는 수출대기업에 있어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농지플랜」의 정책을 통하여 집락이나 지역별로 협의를 통하여 핵심농업인(중심이 되는 경영체)을 정하여, 그곳에 과반의 농지가 집적될 수 있도록 집락전체에

서 협력하는 것으로 그 핵심농이 실질적인 규모 확대를 도모하여 평야지 20~30ha, 중산간지 10~20ha 규모의 경영체가 주류를 점유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전후 농업을 지탱해 온 쇼와(昭和)1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시기를 최후의 기회로 반세기에 걸쳐 실패해온 「구조개혁」에 대한 반성도 없이 실시하는 구조개혁이 「사람·농지플랜」이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지속가능한 「힘 있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는가. 애초에 경쟁력 강화 등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지역사회의 재생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하게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가와 농협 등 지역사회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농가·농촌의 현장에서 「집」과 「마을」의 존속원리에서 배우고 세계의 농업·농촌의 유구한 역사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JA는 지점을 핵심으로 「차세대로 연결되는 협동」을 실천

- 조합원과 지역의 과제를 위한 사업과 운동을 추진 -

JA그룹은 작년 5월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포함한 농업복권을 위한 JA그룹의 제언」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제25회 JA전국대회의 「농업복권」과 「지역의 재생」을 위한 「새로운 협동」의 창조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금년 10월에 개최된 제26회JA전국대회의 의안서 조직협의안에서는 「차세대로 연결되는 협동」을 내세우고 있다. 정조합원의 42%, 185만 명을 점유하던 1930년대 생까지 제1세대가 은퇴를 맞이하고 있고, 1940년 이후의 제2~3세대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을 결집하고 지역과 JA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이다.

이 대회의 의안서에서는 JA그룹 10년 후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첫째, 「지역농업전략」은 집락에서 철저한 합의를 통하여 조합원농가의 영농향상과 지역농업·농지의 계승을 도모하는 「지역영농비전」의 수립과 실천이다. 둘째, 「지역생활전략」은 「JA지점을 거점으로 하는 JA지역생활전략의 실천」으로 JA가 종합사업을 통한 지역생활의 일익을 담당하는 형태로 풍부하고 생활하기 좋은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셋째는 「경영기반전략」으로 JA경영개혁을 방향성으로서 ① 재편성형 경영에서 사업기반강화와 조합원의 이용도 신장형경영으로의 전개, ② 식과 농·생활을 축으로 한 제2세대, 준조합원, 지역주민으로의 접근에 의한 「협동」의 확대, ③ 종합력을 발휘하는 경영태도의 확립과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개혁에 의한 협동의 실천을 잡고 있다.

제26회 협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광역합병과 지소통합이라는 재편성형 경영에 중지부를 찍고, JA지점을 중심으로 조합원과 지역의 과제를 위한 사업과 운동의 전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농가경영이나 지역자원, 집락의 역사 등 집락이나 마을별로 다른 농가의 생산과 생활기반에 입각한 「지역영농비전」 수립과 실천은 JA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농가와 집락주체의 비전수립운동으로 전개되고 JA의 새로운 사업기반확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차세대로 연결되는 협동」은 「강한 경제」의 대항개념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정신의 실천초석을 목표로 1949년에 시작된 신생농협은 전신통제 하에서 농업회가 완성시킨 사업의 「종합주의」(각종사업의 겸영), 동종의 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의 2중 가입을 금지하는 「속지주

의」, 「망라주의」가 계속되었다. 일본의 농협은 이전 불가능한 농가와 농지·자연, 마을에 의거한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조직으로 탄생한 것이다.

JA그룹이 테마로 정한 「차세대로 연결되는 협동」은 원래 농가의 집으로서의 가족주기(라이프 사이클), 그에 따른 경영의 신축을 조정하는 마을의 보완기능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한 유사 이래로 지속되어 온 세대계승 사이클의 단절이 문제가 된 것은 본질적으로는 전후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서구적인 근대화, 도시화, 경제의 글로벌화 등에 의해 농가의 생산과 생활의 일상적인 문화가 변질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차세대로 연결되는 협동」을 위해서는 포스트근대의 새로운 농가경영과 지역경제의 창출이 있어야 한다.

현대는 세계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세계기업과 농림어가, 농촌지역과의 적대적 모순이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였고, 한편에서는 그것이 세계화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세대로 이어지는 농협」의 실천은 「강한 경제」의 대항개념으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각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와 사회〉일본농업의 발전이론』을 시작으로 노다(野田)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세계 즉 글로벌화 세계에서는 “가동성(可動性)”이야말로 “새로운 계급제”이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열망할 수 있는 요소”라는 바흐만의 탁월한 지적이 있었다. “가동성”(이동하는 자유)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구상의 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힘을 말한다. 세계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세계기업과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적 개인”(세계적인 엘리트)야말로 “공간의 전쟁의 승리”자 이다. 글로벌화는 이러한 소수자에게 파격적인 부를 집중시키는 한편, “이동하는 자유”를 대폭으로 제약된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을 방치하고 영원한 빈곤화에 빠뜨린다. 그리고 “이동하는 자유”를 갖지 못하는 자가 “대지에서 영위하는 소규모농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JA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이동하는 자유”를 갖지 않는 소규모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가의 조직이다. 전후 일본농업을 담당해온 전전 제1세대의 생애현역을 지원하고, 그들이 만들어온 직매농업, 농업기술, 그리고 지역자원 활용의 지혜(농가가 창조한 일상문화의 현대적인 재생)에서 배워, 제2세대, 청년부인 제3세대로 이어져온 역할이 JA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JA가 이것을 담당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농협은 마을의 조직원리를 근본으로 하는 2층 건물식의 조직이다.

- 대정(大正)기「농가소조합」운동에서 배운다. -

“사람, 농지플랜”을 농가 감소플랜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과 핵심농과 농지의 문제를 시마네현, 농사조합법인 오꾸, 야마구찌현 농사조합법인 우모레, 미야기현 농사조합법인 카믹스의 대표들에게 들었다. 3명 모두 농촌집락전체의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마을과 지역을 지키기 위한 조직을 생각하고 실천하여 왔다. JA가 주장하는 “개개의 농가가 미치는 부분과 지역내외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는 새로운 협동의 실천”이기도 하다.

국가가 전면화하던 「1940년체제」(전시총력전체제)이전은 국가, 사회, 문명의 본질을 묻는 다양한 농촌사회운동이 발생하였고, 이것들을 농촌진흥으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 시대였다. 대표적으로는 소작쟁의와 농가소조합의 운동으로 농회가 특히 열심히 추진한 농가소조합은 거의 유통과정의 공동으로 특화된 산업조합과는 다르게 「생산과정의 공동」(생산창조)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조직이었다. 시장대응을 과제로 하는 기능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메이지시대의 소조합과 다르고, 또한 자치적인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쇼와시대의 소조합 = 실행조합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농사의 개

량”의 기능을 합하여 “농업경영의 개선”과 “농가경제의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공동의 힘으로 농업경영의 내연적인 확대(현재의 6차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그 농가소조합의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작업 등의 노력조정, 공동정미, 정맥, 품종개량, 공동구입, 경지, 수리개선, 공동판매, 농림산가공, 양축, 양잠, 산림, 죽림, 복리증진 등 12개 사업의 걸친 협동활동이 조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조합은 시가(滋賀)현에서는 1930년 처음에는 대부분 농업집락수와 맞먹는 수를 기록하였다.

이 농가소조합은 부현농회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을의 결합력에 입각한 마을단위로 하는 농업조직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법률에 의한 강제력이 없이 전시통제에 들어가기 전 「자주성」을 갖는 시대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가고시마(鹿兒島)현 농회가 1896년 장려한 것을 계기로 발전하여 대정(大正)시기까지 44개 부현에서 추진되어 농가소조합수는 약 8만 조합에 이르렀다.

그 후 소화 공황기에는 농산어촌경제 갱생운동의 실동부대로서 동원되었고, 1932년 산업조합법의 개정으로 농가소조합은 법인화되어 농사실행조합이 되어 산업조합으로 전부 편입되었다. 그러나 농가소조합의 자치적인 성격이 강하게 지속되어, 그 결과 “마을과 통합한 협동조합”이라는 유럽과는 다른 “일본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농가소조합을 원천으로 하는 자주적인 마을 만들기 운동이야말로 “지역영농비전”으로 받아들여 교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화 시대의 <세계표준>에서의 탈피

앞에서 언급한 「JA그룹의 제안」의 「제언의 개요」에서는 「① 일본이 지향하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농업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일본은 국토면적이 좁아 중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미국 등 대륙형 농업과 같이 수백 수천ha 규모의 대규모경영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지향해야 할 지속적발전이 가능한 농업은 규모 확대나 가격경쟁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집락이나 농지의 실정에 따라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안심, 안전한 국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국민의 신뢰관계 등 농업·농촌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② 집락별 『핵심경영체』를 중심으로 하는 벼농사의 장래상(象) 존재」의 항에서는 「사람·농지플랜」과 같이 핵심농의 존재가 있으며, ①항과 양립하여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는 의문을 지을 수가 없다.

농업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다수의 영세경영을 도태하고 일부 대규모경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창출된 소수의 경영체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이러한 기업적 경영체에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최후의 4반세기에 있어서 유럽은 식량수입지역에서 미국, 호주에 이어 거대수출지역으로 부활하였다. 그 재 전환을 이룬 배경이 18세기 윤재식농법에 의한 근대농업혁명의 성과와 기계화, 화학화(탈자연, 공업화)를 철저히 접목시킨 농업구조개혁(현대농업혁명) 이고, 그것이<세계표준>이 되어 농업을 둘러싼 세계정치를 일신하게 된 것이다.

그 서구형 구조개혁(현대농업혁명)으로의 적응력에서 세계농업을 보면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은 「구조개혁불요지역 = 서구 신개척지형 농업, 제2유형은 「구조개혁달성지역 = 서구 구개척지형 농업, 제3유형은 「구조개혁불능지역 = 아시아지역형 농업, 제4유형은 「구조개혁미연지역 = 아프리카지역형 농업」이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광대한 경지에서 신대륙형 농업을 전개하여 온 미국이나 호주(제1유형), 소농을 빠르게 배척하고, 축산·밭 농업을 축으로 규모 확대, 기업적 농업을 추진한 서구(제2유형)

에 대해서 일본 그리고 아시아는 「구조개혁불능 지역」이며, 그것을 인식하고자 하지 않는 「사고정지」야 말로 1960년 이후 반세기에 걸쳐 구조개혁에 대한 실험이 실패한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구조개혁 「불능」이란 것은, 글로벌화 시대에 유포되고 있는 오만한 <세계표준>을 정당하게 거부하기 위한 선언이며, 앞에서 언급한 「JA그룹의 제안」의 ①도 그의 표명이다. 당연히 제안 ②의 「핵심경영체」도 TPP추진파의 「강한 농업」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집과 마을」의 존속을 위한 「지역영농비전」을

사람과 농지의 문제는 농정과제가기 전에 농가와 집과 농업과 마을의 문제이다. 일본의 집과 마을이 어떻게 성립되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서 부터 사람과 농지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당사자부재로 논의되는 꼴이 된다.

일본의 전통적인 “집”과 “마을”=공동체는, 전후 서구 근대의 이념적 가치를 기준으로 「민주화」, 「근대화」의 장애물로서 해체, 극복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고 지금, “사람·농지플랜”에 의해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사회기층에 있는 “집”과 “마을”=공동체를 유럽화에 의해 더욱 철저히 해체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전망할 것인가, 반대로 “집”과 “마을”의 복권, 현대적으로 지역을 재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경제를 전망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농가와 농촌에 입각한 JA의 「새로운 협동」, 「차세대로 연결되는 협동」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전통적인 “집”과 “마을” 가족경영(가족과 가산)과 촌락공동체(커뮤니티와 지역자원)에 깊이 각인된 DNA와 원리를 복권시켜 새로운 현대적으로 재생시키는 것이야 말로 JA그룹의 「지역영농비전」 정책운동일 것이다. ㉞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12년 10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